

韓銀 경제 예측 줄줄이 '헛방'

세계경제 성장률·유가 등 주요 지표 빛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 불가피

한국은행이 올해 4.7%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으나 이러한 전망의 전제가 되는 세계경제 성장률과 유가 등 주요 지표들이 한은의 예상과 속속 빛나가고 있어 성장률 하향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은은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경기하강 위험이 커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3일 한은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원유 도입단가를 배럴당 81달러로 예상했다. 그러나 1월 원유 도입단가는 배럴당 89.6달러로 한은의 예측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경기하강 위험이 커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3일 한은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원유 도입단가를 배럴당 81달러로 예상했다. 그러나 1월 원유 도입단가는 배럴당 89.6달러로 한은의 예측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올해 경정수지가 30억 달러의 적자를 나

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유가 현상이 계속되면 경상수지 적자액은 한은의 예상치를 훨씬 능가할 수도 있다.

유가 급등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9%로 끌어올렸다. 통계청과 한은 등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 부근을 나타낼 것으로 내심 기대했으나 실제 수치는 이를 웃돌았다.

더 큰 우려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한은이 예상한 수준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6%로 예상했다. 작년 5.1%보다 0.5%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1.8%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4%에서 4.1%로 하향 조정했다. IMF가 작년 7월에 제시했던 전망치 5.2%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에 따라 전 세계 경제도 함께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어 교역신장률 역시 함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 세계 교역 신장률이 7.3%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발 경기부진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교역 신장률도 낮아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4.7%를 예상하면서 설정한 전제들이 한은의 예측과 크게 빛나감에 따라 정책 금리 조정이나 부양책이 동원되지 않는 한 성장률의 하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그러나 "여러 지표들이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을 지는 몇 달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당장 성장률 전망 자체를 바꿀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 증폭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확실시 될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 운영 기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팔 승용차' 사라진다

국내 업체 배기량 1,800cc 생산 중단

한때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특이하게 한뫇했던 배기량 1천800cc급 중형세단, 소위 '점팔 승용차'가 많지 않은 시점에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오는 6월까지 중형 세단 로체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으면서 기존에 유지해온 1천800cc 모델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로체의 고급화 전략에다 국내외에서 1천800cc급 중형차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아차는 신차 수준의 로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적합한 기대를 걸고 있다. 내외관을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 선보이는 동시에 차량에 적용될 사양 역시 고급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체는 총 1천381대가 생산돼 전체 로체 판매량의 3.7%에 불과한 1천 202대가 팔리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내 '점팔 중형차'의 맥은 GM대우 토스카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M대우의 1천800cc급 토스카 역시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524대가 생산돼 500대가 판매됐을 뿐이다.

김앤장 세무조사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이 국제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제청은 최근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대상 등에 통보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제청은 "국제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세무조사 여부와 대상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국제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서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납세자의 날에 수상하는 방법으로 외환위기 이후 국제청의 세무조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사 '거침없는 수주행보'

1월 해외수주 50억달러... 올해 400억달러 전망

작년에 사상 최대 해외수주실적을 올린 국내 건설업체들이 올해 들어 더 거침없는 수주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달만에 50억달러를 가뿐히 돌파, 올해 400억달러를 달성해 작년의 기록조차 갈아치울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올린 공사계약건수는 58건에 금액으로는 53억4천500만달러에 이른다. 이는 연간 398억달러를 수주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의 1월 실적(51건, 27억9천만달러)과 비교해도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달 수주실적을 공종별로 보면 플랜트가 38억600만달러로 단연 많고 건축 8억9천400만달러, 토목 5억5천만달러 등이다. 또 나라별로는 카타르 9억4천500만달러, 쿠웨이트 6억9천500만달러, 태국 6억6천900만달러, 중국 5억9천600만달러, 나이지리아 5억1천900만달러 등으로 여전히 중동에서의 수주가 많지만 아시아지역에서의 수주가 증가한 게 새로운 특징으로 분석되고 있다.

6억이상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새정부 중부세·양도세 완화 등 기대 평균 0.3% 올라

지난해 12월 대선 이후 서울지역의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새 정부가 이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지난해 대선 이후 6주간(2007년 12월21일 대비 2008년 2월 1일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평균 0.13%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대선 전 6주간(2007년 11월 16일 대비 2007년 12월21일 기준) 평균 0.06%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할 경우 중부세·양도세 등 세제혜택이 기대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아파트값은 대선 전에 0.09% 하락했던 것과 달리 대선 후 0.04% 올랐다. 또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비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대선 이전 6주간 0.25% 하락했으나 이후 6주간 0.28% 상승했다.

가격대별로는 대선 후 6억원대가 0.

27%, 7억원대는 0.41%, 8억원대 0.1%, 9억원대 0.67%, 10억원 이상 0.21% 각각 올랐다.

부동산써비 조사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용산구로 국제업무지구, 용산민족공원 조성 등의 호재에 힘입어 같은 기간 1.03% 올랐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아 대선 이전 약세를 면치 못했던 강남권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는 대선 전 6주간 0.05% 하락했으나 이후 0.46% 올랐고, 서초구(-0.13%→0.17%), 송파구(-0.42%→0.2%), 강동구(-1.07%→0.12%)도 모두 대선 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세제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집값불안 등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 단기기간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3일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이 전남산 쌀로 빚어 넣어놓은 설떡국용 떡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가는 100g에 600원. (광주신세계 제공)

대형마트·편의점 공세 동네 구멍가게 매출 뚝

지난해 매출 격차 커져... 대형마트 수 29% 증가

지난해 소매업종 중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매출은 큰 폭 늘어난 반면 동네 구멍가게들은 경쟁에서 밀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기타대형종합소매로 분류되는 대형마트의 지난해 매출(경상지주)은 전년에 비해 9.8% 증가했다.

이는 2006년(8.5%)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전년 대비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율은 2004년 9.9%에서 2005년 9.1%, 2006년 8.5%로 계속 하락하다 지난해 상승 반전했다.

대형마트와 함께 대표적인 소매업종인 편의점의 매출도 지난해 11.1% 늘어 전년(7.9%)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형마트와 함께 대형종합소매업에 속하는 백화점의 매출은 지난해 3.2% 늘어나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년(5.6%)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작아졌고, 체인화된 대형슈퍼마켓의 지난해 매출은 4.6% 증가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다.

반면 지난해 기타종합소매업(편의점 제외)의 50평 미만 소형마켓의

매출은 전년에 비해 2.9% 감소, 소매업종 중 유일하게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흔히 동네 구멍가게로 불리는 기타종합소매업의 매출은 2001년 4%, 2002년 2.9%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3년 -0.5%, 2004년 0.1%, 2005년 -3.4%, 2006년 4.7%, 2007년 -2.9%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다른 소매업종과 달리 동네 구멍가게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증가하면서 기존 구멍가게 고객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1995년 25개에서 2005년에는 316개로 연평균 28.9% 증가했고, 편의점도 같은 기간 1천557개에서 8천855개로 매년 평균 20%씩 늘어났다.

반면, 구멍가게로 통칭되는 재래매점은 이 기간 73만9천599개에서 58만 5천996개로 연평균 2.3%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형 분양주택 투자는 연기금·금융펀드만 가능"

인수위, 일반인 직접투자 제한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규 도입되는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투자 방식은 연기금이나 민간투자펀드 등 간접투자 형식으로 이뤄지며, 개인인 직접투자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3일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리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와 관련,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투자자는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의 펀드가 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제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지분형 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투자자는 최대 49%까지 지분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분양가의 절반만으로도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어 '신(신)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인수위는 오는 6월 관련법률을 개정해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진엔지니어링	자동차활성비분야 공장장님	고졸/경력15년	회사내규	02/04	062-955-5079
해운주력건설	경리, 회계, 자금 경력직	초대졸/경력10년	3000~3200	02/05	062-651-8871
우신	타이어 금형 제작 설계/ 현장 직위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11	016-610-0469
두메푸드시스템즈	[외식부]유통기사/외식영업/영업사/푸드코디네이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1	062-571-6000
상하이건설	창고, 재고관리, 배송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2/11	011-614-2480
이클	생산관리, 품질관리 경력직	초대졸/경력2년	1800~2000	02/11	062-971-2352
하우	사무보조, 경리, 문서작성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2	062-350-2691
태흥이앤에스	2008년 상반기 A/S 기술사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2/14	062-522-9181
현대에프에스	생산직(삼면포장기 오퍼레이터)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4	062-959-5114
하우	게임개발업무(클라이언트, 서버, 응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4	062-350-2691
에이원코리아	용접 및 기계조립업무(알콘, CO2용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14	062-945-0805
우도물정보기술	전자/임베디드 개발 직위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2/15	011-607-1163
호남대학교 공자이카데미	연구원(개발, 행정) / 시간강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5	062-380-8430
바르질라 현대 엔진 유한회사	2008년 하반기별 사원 (전남영암)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6	052-202-984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다양한 고가 설 선물

파일·한우세트 외에 푸아그라·캐비어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의 설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업체에서 공들여 기획한 '프리미엄급' 고가 선물세트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과일세트 중 가장 고가에 속하는 '푸름 유가농 사과세트'(16개입, 15만 원)는 준비수량 30세트가 이미 모두 판매됐다.

방짜유기에 인삼, 육포, 대추 등 고급 재료로 만든 '에인' 한과세트는 150만원짜리 3세트 중 2세트가 팔렸고 35만원짜리 '고종시 명품 꽃감세트'는 30세트 중 28세트가 나갔다.

이밖에 1+4 등급 한우 암소의 다양한 부위를 모은 '프리미엄 암소 한우세트'(6.4kg, 80만원)는 미리 준비한 50세트가 이미 다 팔려 추가로 25세트를 확보해야 했고 송로버섯과 겨우간(푸아그라) 칠감상어알(캐비어)을 모은 '세계 3대 진미세트'(80만원)도 5세트 중 4세트가 판매됐다.

신세계도 백화점의 경우 1일 현재 죽전점(작년 3월 개점)을 제외한 전 점포의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설보다 31% 올랐고 이마트 역시 59% 상승했는데 특히 이마트의 프리미엄급 선물세트 판매율이 평균 60%로 일반상품 평균 4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마트의 '고당도 사과 VIP 선물세트'는 준비수량의 80%가 팔렸고 '동지사리 굴비 세트', '힐성 한우 세트' 등 기존 선물세트보다 높은 가격대의 상품이 70~97%의 높은 판매율을 보였다.

로또복권 (제270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지수
5 9 12 20 21 26	27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927,830,060	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0,203,908	32
3 5개 숫자 일치	1,293,499	1,242
4 4개 숫자 일치	53,724	59,807
5 3개 숫자 일치	5,000	971,485

팝콘복권 (제93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4조	949071
2	1억	4조	154258
		5조	311658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55678
5	50만	각조	4480
		각조	68
6	2천	각조	08
		각조	46
		각조	4
7	1천	각조	2
		각조	8